

“5·18 민주·인권·평화 가치 팔·이란으로”

姜시장, ‘힌츠펠터 시상식’서 게오르크 주한독일대사 면담 광주-독일 교류 방안 등 논의…‘소년이 온다’ 번역본 선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 가치가 팔레스타인과 이란으로 확장돼 평가 받기를 염원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7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열린 ‘힌츠펠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에서 게오르크 슈미트(Georg Schmidt) 주한 독일대사와 만나 5·18민주화운동 및 오월 정신에 대해 얘기하고, 팔레스타인과 이란의 평화를 기원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상식에 앞서 전일빌딩 245 1층 ‘소년이 온다 북카페’에서 게오르크 대사와 면담을 갖고 광주-독일 간 교류 방안, 80년 5월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린 언론인 힌츠펠터의 정신을 되새겼다.

강 시장은 게오르크 대사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번역본을 전하며 “1980년 5월에는 힌츠펠터 기자가 5·18의 진실을 알렸고, 오늘날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다시 한번 전 세계에 5·18을 알리고 있다”며 “5·18을 알리기 위해 고통과 공포를 견뎌준 모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게오르크 대사는 “힌츠펠터 기자와 관련해 광주와 교류 협력을 지속하고 싶다”며 “44년 전 광주의 진실이 언론을 통해 세계로 알려졌듯이 광주의 힌츠펠터 국제보도상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전쟁·인권탄압 등 현실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동호’의 모티브가 된 문재현 열사의 어머니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힌츠펠터 국제보도상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부독재에 의한 시민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위르겐 힌츠펠터 영상 기자의 정신을 기리고 전 세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2021년 제정돼 올해 4회째를 맞았다. 5·18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4개 부문(대상, 뉴스 부문, 특집 부문, 비경쟁 부문)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 대상은 팔레스타인 알 자지라(AI Jazeera) TV의 ‘가자로부터 온 목소리(Voices from Gaza)’가 선정됐다.

모하메드 사와프 등 4명으로 구성된 취재팀



강기정 광주시장(오른쪽)이 지난 7일 게오르크 주한독일대사인(왼쪽)을 갖고 상호 교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영문판 ‘Human acts’를 선물했다. 이 자리에는 해당 도서의 주인공 ‘동호’의 모티브가 된 문재현 열사의 어머니 김길자(가운데)씨도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광주시 제공>

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인간의 존엄과 삶,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가자(Gaza) 주민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냈다.

뉴스 부문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후 가자 지구의 삶을 짊어주는 뉴스로 현장감 있게 표현한 팔레스타인 프리랜서 영상기자 유세프 함마쉬의 ‘지금 가자에선(Inside the Gaza Siege)’이, 특집 부문은 이란 하잡시위를 통해 본 이란 내

여성의 인권과 그들의 투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이란: 자유를 위한 투쟁(Inside Iran: The Fight for Freedom)’을 만든 게스빈 모하마드가 각각 수상했다.

비경쟁 부문 공로상인 ‘오월광주상’은 1988년 ‘로안 장군의 즉결심판’·1972년 ‘네이팜탄 소녀’ 등의 영상을 촬영한 보수,故 단 폭 레,故 알렌 다운스 등 3명의 영상 기자에게 돌아갔다.

/박선강·주성학기자

김원철 광주 북구지사協 공동위원장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광주 북구는 “최근 김원철 북구지사협회장(이하 지사협) 공동위원장이 강원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훈장 동백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서 공을 세운 국민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이에게 수여되는 훈장이다. 20여년간 북구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으로 활동해 온 김 위원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원철 위원장은 “혼자만의 공로가 아닌 북구 27개 동의 주민자치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이룬 결과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 및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 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연재명기자

정용인 보성소방서장 ‘대통령 표창’



보성소방서는 10일 “정용인 서장이 제20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서장은 전남소방학교장,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팀장, 소방청 기획팀 등 주요 요직을 거쳐 지난 해 7월 제18대 보성소방서장으로 취임했다.

정 서장은 탁월한 업무 추진력과 소통하는 리더십을 보이며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소방 조직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화재 및 구조, 구급 현장의 지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응훈련과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예방 홍보 활동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정 서장은 “모든 공로와 성과는 동료들과 함께 이뤄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보성소방서 전 직원들과 수상의 영광을 함께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보성=임병연기자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챌린지’ 동참

광주교육대학교는 “최근 허승준 총장이 청소년 불법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 3월 서울경찰청에서 시작한 공익 캠페인으로,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사회 전반에 널리 알리고자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주교대는 이번 캠페인을 홈페이지 및 대학 SNS에 널리 알리고, 구성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댓글 이벤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승준 총장은 전주교대 박병춘 총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동진 광주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허승준 총장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의 유혹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교육 계가 앞장서야 한다”며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미기자

인사

광주지방국세청 <서기관승진>
▲운영지원과장 홍영표

결혼

▲김재삼·김필숙씨 차남 건우군, 박종철(담양청추 대표)·김청옥씨 장녀 윤양=17일(일) 오후 12시30분 하우스 오브 드레즈 1층 지젤홀, 광주광산구 임방울대로 551(도천동 147-29), 062-228-0000, 010-3602-1966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協, ‘전남특별자치도’ 염원

전남도와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협의회는 지난 8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2024 회원대회를 열어 “전남특별자치도” 지정 염원 퍼포먼스를 펼치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가꾸는 데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 회원대회는 한 해 동안의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성과를 결산하는 자리로,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동체 의식과 사명감을 제고하는 뜻깊은 행사로 매년 열고 있다.

회원대회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박문옥 도의회 운영위원장, 박주영 바르게살기운동 전남도협의회장, 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유공자 표창에선 김경환 산악회장이 정부 포상인 대통령 표창, 최중기 부회장이 바르게살기

표창, 이재경 청년회장이 국무총리표창을 각각 받았다. 이 밖에도 장관 표창 18명, 전남지사 표창 8명, 도의회의장 표창 5명, 바르게살기 운동 표창 33명, 도 협의회장 표창 2명 등 총 10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주영 협의회장은 “한 해 동안 씁쓸한 봉사로 행복한 전남 만들기에 앞장서주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의 결의를 다지고 ‘바른생각, 바른실천’으로 지역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가꾸자”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의 진실·질서·화합이라는 3대 이념 실천이 지역사회 통합과 기초질서 확립에 큰 원동력이 됐다”며 “행사가 성과를 공유하고 회원 간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화순문화원, 생태 공감 백일장·문화공연 ‘성료’

화순문화원은 “최근 사평면 물사랑 배움터에서 ‘제11회 생활문화, 생태를 공감하다’ 백일장 대회 및 문화공연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화순군 관내 유·초·중·고 학생 300명, 일반부 50명이 참여해 물과 환경, 물과 사람, 소중한 물, 깨끗한 물이란 주제로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또 주안호를 만들면서 희생된 이들을 기리고 수질오염 개선을 주제로 사물놀이, 전통무용, 민요 등 공연을 개최해 동호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함께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 밖에도 천연비누 만들기, 커피 클레이(물

고기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을 통해 물의 소중함과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을 재활용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며 아이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뜻깊은 체험의 장을 제공했다.

화순문화원 관계자는 “행사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물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 물을 아껴야 하는 필요성과 자원의 재활용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길 기대한다”며 “올바른 물 사용과 물 절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기자

HDC현산, 백혈병소아암協 광주전남지회 후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10일 “지난 8일(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 사무실을 방문해 사랑의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는 소아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완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익단체다.

이번 기부 행사에는 최영준(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장, 호명기 HDC현산 AI추진담당 등이 참석했으며, 후원금은 소아암 투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교육 및 문화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HDC현산 관계자는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 청소년의 교육과 문화 지원을 위해 후



원금을 전달했다”며 “환우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HDC현산은 돈보스코 나눔의집 시설 개선 지원, 5·18 역사공원 나무 심기 봉사, 작은 도서관 개소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주성학기자

신안경찰·경찰발전協, 복지시설에 휠체어 기증

신안경찰서와 경찰발전협의회는 “최근 연말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을 방문해 휠체어 6대를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관계자는 “요양원에 있는 80여명의 어르신들에게 휠체어는 매우 필요한 것”이라며 “큰 도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성철 경찰발전협의회 회장은 “적은 양의 휠체어 기증이지만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안경찰서와 함께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여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준 신안경찰서장은 “고령과 치매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보살피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한다”며 “더불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 경찰발전협의회 회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신안=양훈기자



고흥경찰, 보이스포싱·마약범죄 예방 캠페인

고흥경찰서는 “최근 풍요로운 고흥유자축제 행사 현장을 찾아 보이스포싱 및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수사파트너십 포럼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도화되는 신종 보이스포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급부상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고흥경찰서와 수사파트너십 포럼 회원 2명 등이 함께했다.

축제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포싱 피해 예방을 위한 속지사항과 마약 투약으로 인한 위험성을 알리는 전단지 및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공정원 고흥경찰서장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에 연루됐다면 돈을 이체하려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일단 보이스포싱을 의심하고,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즉시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고흥=최봉환기자